미국에서의 반일운동과 한인 이민의 적응 (1905-1910)

김지원*

〈차 례〉

1. 머리말
2. 미주 한인의 법적 지위 변화
3. 1906년 샌프란시스코 교육위원회의 학생분리 결정
4. 1907년 〈행정명령 589〉와 한인 이민 중단
5. 1908년 신사협정과 사진신부 도래
6. 맺음말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1905년부터 1910년까지 캘리포니아에 이주한 한인들의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을 분석하는 데에 있다. 한인들의 법적 지위는 다른 동양계 이민자들과 같이 '시민권에 부적격인 외국인'이었으며, 1905년 이후 미주한인의 법적인 지위는 일본의 신민으로 적용되었다. 본 연구는 special collection, 구술사, 그리고 최근의 연구들을 검토하면서 캘리포니아의 한인들이 반일본 관련법으로 어떻게 영향을 받았으며, 나아가 이러한 법적인 변화에 적응하며 한인사회에

* 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

나타난 특성이 무엇인지 검토했다.

20세기 전후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동양계 이민자 차별현상은 일련의 반동양계 이민 관련법과 반일본 관련법들의 제정으로 구체화되었다. 1882년 중국인배척법을 제정하여 마침내 중국계 이민을 중단시켰고, 1905년 러일전쟁을 전후로 일본계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반일운동을 결성하기도 했다. 캘리포니아의 한인들은 일본 신민의 지위를 거부하고 한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생활했지만, 1905년 이후 일본계 이민 배척을 목표로 한 반일운동이 극심해진 캘리포니아에서 동양계 이민자라는 차별적 지위에 일본의 신민이라는 법적 신분마저 부가되어 더욱 차별적인 환경에 적응해야 했다. 1906년 한인들은 샌프란시스코 교육분규로 백인과 분리되어 동양계 학교에서 교육받도록 결정되었지만 캘리포니아에 한국어 학교를 설립하여 한인의 자발적 의지를 표현했다. 1907년 하와이에서 대륙으로의 한인 이민이 중단되어 한인 사회가 지대한 타격을 받았지만 1908년 신사협정의 결과 독신 노동자가 주류를 이루던 한인사회는 1910년 이후 사진신부의 도래로 가족 중심의 공동체로 형성되기 시작했다.

주제어: 반일본관련법, 한인이민, 샌프란시스코 교육분규, 행정명령 589, 신사협정, 사진신부

1. 머리말

미국의 동양계 이민자들은 1790년 귀화법부터 시민권에서 배제되었고, 동양계 이민자들은 이민 초기부터 '시민권을 획득할 수 없는 외국인(aliens ineligible to citizenship)'으로 간주되었다.[1] 연방과 캘리

1) 1790년에 제정된 귀화법에 따라 미국의 시민권은 흑인과 인디언을 제외한 백

포니아 정부 모두 동양인을 시민권에서 배제했지만, 중국계 이민자가 주로 거주한[2] 캘리포니아에서는 연방보다 더 구체적으로 중국계 이민을 제한하는 규정들을 시행했다.

특히 1882년 중국인배척법에서 1850년부터 도래한 중국계 이민을 배척했으며 아시안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을 것임을 확고히 명시함으로서 동양계 이민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이 결정되었다. 중국계 이민 배척 이후 1890년 경부터 유입된 일본계 이민에 대한 적대감은 우선적으로 인종문제에 근거했다. 일본인들은 중국계 이민과는 달리 농업의 특정작목 독점, 사회적 상승이동, 강대국 일본의 자국민 보호 등의 특성으로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자극하여 결국 1905년 아시안배척연맹을 결성하여 일본계 이민 배척을 목표로 삼았다. 미국의 동양인에 대한 차별정책은 반중·반일감정을 형성하면서 체계화되었고, 시민권 배제, 이민 배척, 사회적 차별 등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본 연구에서 논의할 1905년은 미주 한인 이민사에서 중요한 시점이었다. 한인들은 1903년부터 시작된 하와이 이민을 계기로 미국으로 본격적으로 이주하기 시작했다. 대한제국 정부에서 1905년 11월 하와

인 자유인에게만 부여되었다. 1870년에 이르면 아프리카 출신자 및 그 자손에게도 미국 시민권이 부여되었다. 이후 1917년에 제정된 이민법을 통해 아시아의 특정 지역으로부터 이민이 금지되었고, 1924년 이민법을 통해 동양인의 이민이 전면적으로 금지되었다. 1913년 외국인토지법은 '시민권에 부적격한 외국인'이 미국에서 토지를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것을 금지했다. 1922년의 케이블법은 시민권에 부적격한 자와 결혼한 여성에게 미국시민권을 박탈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했다. 1943년 중국인배척법이 폐지되면서 중국계 이민자들은 미국시민이 되었다. 한인 1세는 1952년 맥캐런워터법이 제정되면서 비로소 미국시민이 될 수 있었다.

2) 1870년 미국의 중국인 63,199명 중 99.4%가 서부에 있었고, 78%인 49,277명이 캘리포니아에 거주했다. 1870년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중국인은 71.2%였다. Roger Daniels, *Asian America: Chinese and Japanese in the United States Since 1850* (Seattle and London: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88), p. 73.

이 한인이민을 중단시킬 때까지 하와이에 도착한 한인들은 총 6,747명에 이르렀다. 한인들은 경제적 목적을 위해 하와이로 이민왔지만 플랜테이션의 노동자로 일하면서 경제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사탕수수 농장에서의 낮은 임금과 열악한 환경은 한인들이 미 본토로 이주하도록 한 주된 원인이었다. 한인 중 일부는 하와이에 도착하여 이민생활을 하다가 1, 2년이 지난 후 높은 임금과 새로운 삶을 찾아 캘리포니아로 이주했다. 미국의 인구조사에 의하면 1905년부터 1910년 사이 하와이에 거주하는 한인 총 6,747명 중 1,015명이 캘리포니아로 이주했다. 1904년 경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한인은 100명이 채 되지 않았고, 하와이에서 재이주한 한인들과 결합하여 캘리포니아 한인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1905년 11월 이미 모국에서 미국으로의 한인 이민은 중단되었기 때문에 1905년부터 하와이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주한 한인들에 의해 캘리포니아의 한인 인구는 증가했던 것이다.

1905년부터 캘리포니아로 이주한 한인들은 미국에 도착한 직후부터 이와 같이 동양계 이민자들에게 이미 제정된 법적·사회적 차별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한인들의 이민이 시작된 20세기 초부터 미주한인들의 법적 지위는 미국은 물론 한국 내의 정치·사회적 변화에 따라 크게 달라졌다. 한인들은 이민 초기부터 동양계 이민자로서 '시민권을 획득할 수 없는 외국인(aliens ineligible to citizenship)'이었고, 1905년 이후 법적인 지위가 일본의 신민으로 적용되었다.

이와 같이 국적의 상실로 인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의 위기는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신분에 커다란 변화를 주었다. 특히 1905년 대한제국이 외교권을 상실한 시기에 캘리포니아에서는 아시안배척연맹(Asiatic Exclusion League)이 결성되어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반일운동이 본격화되었다. 일본의 신민으로 법적 지위가 변화된 미주 한인들은 다양한 반일본 관련법들의 영향 속에서 생존하고 적응해야만 했다.

초기 한인 이민자들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조국의 독립을 위한 활동과 조직을 중심으로 한 연구에 국한되었고 한인 사회의 형성과정과 적응을 법적·사회적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가 부족하다. 특히 초기에 이주한 한인들 대부분이 거주했던 캘리포니아 지역의 타민족과의 연계를 통한 한인 사회의 특성에 관한 연구는 매우 빈약하여 초기 미주한인의 특성 및 적응에 관한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논문은 이민 초기부터 '시민권을 획득할 수 없는 외국인'으로 그리고 을사조약과 한일합방 이후에는 일본의 신민으로 법적 지위가 변화된 한인들의 신분 변화가 한인사회에 미친 영향 및 특성에 관한 연구로서 구체적으로 다음의 문제들을 분석하려고 한다. 을사조약과 한일합방조약의 결과 일본의 신민으로 법적 지위가 변화된 한인들이 새로이 적용된 법적 지위로 인하여 어떻게 불평등한 위치에 놓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반일운동이 극렬하게 전개되었던 캘리포니아에서 한인사회가 반일본 관련법으로 어떻게 영향을 받았으며, 마지막으로 이러한 법적인 변화에 적응해 한인사회에 나타난 특성이 무엇인지 시기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1906년 샌프란시스코 교육위원회의 학생분리 결정, 1907년 연방정부의 <행정명령 589>, 1908년 일본과의 신사협정 등이 한인사회에 미친 영향과 한인의 대응을 검토할 것이다.

본 연구는 미주 한인의 초기 이민사에서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캘리포니아 지역의 한인사회의 형성과정을 분석하여 일제 식민지 시기 해외한인의 이민사 연구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미국 이민사에서 동양인 1세의 적응에 관한 독특한 모델을 부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2. 미주 한인의 법적 지위 변화

1905년 일본정부는 하와이 주재 일본총영사 사이토를 하와이 주재 한국명예총영사로 임명하도록 주한일본공사관에 지시했다. 이는 해외 한인을 일본이 지배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도였다. 대한제국 정부는 5월 5일 하와이 주재 일본총영사 사이토를 하와이 주재 한국명예총영사로 결정하고, 주한 일본공사관에 영사위임장을 전달했다. 또한 일본정부에서 요청한 대로 사이토를 하와이 한국명예총영사로 임명했다는 사실을 주미공사를 통해 미국정부에 알렸다. 그러나 하와이 한인들은 워싱턴의 주미한국공사가 하와이 일본총영사를 한국총영사로 임명하는 훈령을 내리자 이에 불복했다.

1905년 7월 미국과 일본은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체결하여 미국은 조선에 대한 일본의 지배권을 인정하고, 반면 일본은 당시 미국이 점령하고 있던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권리를 인정했다. 이 밀약의 주요 내용은 미국이 아시아에 영향을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고, 조선과 만주에 일본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1905년 11월 일본정부는 추밀원 의장 이토를 대한제국에 파견하여 을사조약을 본격적으로 체결하려고 했다. 11월 9일 이토는 서울에 도착하여 고종황제를 알현하고, 조약을 체결하려고 했으나 황제가 이를 승낙하지 않았다. 그러나 11월 17일 이토는 대한제국 정부의 각료들을 일본 공사관으로 불러 을사조약을 승인하게 했다.

일본정부는 을사조약이 체결된 후 일련의 과정을 거쳐 미주한인을 비롯한 해외한인의 지위를 대한제국의 국민에서 일본의 신민으로 변경시켜 나갔다. 을사조약의 중요한 내용은 일본정부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장악하는 것으로,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정부의 사전승인 없이는 국제 조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을사조약 제1조의 내용에 따라 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각 국가에 있는 일본공사와 영사가 대리하여 보호하게 되었다.

미국, 일본, 그리고 대한제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미주한인의 법적 지위를 변경하는 과정이 단계적으로 진행되었다. 1905년 11월 27일, 미국의 국무장관 에리후 루트(Elihu Root)는 향후 대한외교는 일본정부를 통해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주한 미국공사관을 철폐할 것이라고 일본정부에 정식으로 통보했다. 그리고 1906년 1월 샌프란시스코 주재 일본영사는 미주한인에 관한 업무는 앞으로 일본영사가 담당할 것이라고 한인 명예영사에게 통보했다. 이에 따라 주미 한국공사 서리 김윤정은 주미한국 공사관을 일본공사에게 이양한 후 귀국했다.

일본은 을사조약으로 대한제국 정부의 외교권을 박탈한 후 1906년 1월 31일 주한일본공사관을 비롯하여 각국의 영사관을 철수했다.[3] 1906년 2월 통감부가 설치되어 3월 2일 초대 통감 이토가 서울에 부임했다. 그는 외교사항에 관한 문제들을 결정하는 주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1906년 2월 대한제국 정부는 '해외한인은 어느 곳에 있든지 일본영사의 보호를 받으라'고 명했다.[4] 1910년 8월 22일,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에 한일합병조약이 맺어져 대한제국은 일본제국에 편입되었다. 8월 29일 이 조약이 공표되었고, 이제 해외한인의 법적 지위는 일본의 신민으로 변화되었다.

캘리포니아의 한인들은 일본 신민의 지위를 거부하고 한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생활했지만, 1905년 이후 반일운동이 극심해진 캘리포니아에서 동양계 이민자라는 차별적 지위에 일본의 신민이라는 법적 신분마저 부가되어 더욱 차별적인 환경에 적응하며 삶을 개척해야 했다.

---

3) http://k.daum.net/qna/view.html?qid=2ibnv

4) Won-yong Kim, *Chaemi Hanin Osipnyun-sa (Fifty-Year History of Koreans in America)* (Reedley, CA: Charles Ho Kim, 1959), p. 310에서 인용.

3. 1906년 샌프란시스코 교육위원회의 학생분리 결정

동양계 학생들을 분리해 교육시키겠다는 샌프란시스코 교육위원회의 결정은 1905년 아시안배척연맹 결성 이후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반일감정을 가장 잘 드러낸 사건이었다. 1906년 10월 11일 샌프란시스코 교육위원회는 분리 결정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10월 15일 모든 일본인과 한인 학생들을 샌프란시스코 소재 차이나타운의 동양인 학교에 등교하도록 명령했다.[5] 교육위원회는 학급당 인원이 많고 혼잡했다고 언급했지만, 실제로 일본인 학생들은 전체 학생 수에 비해 그 수가 극히 적었다.[6]

샌프란시스코 교육위원회는 일본인과 한인 학생들을 백인 학생들로부터 분리하기 위해 몽고인종이라는 새로운 인종 기준을 적용했다. 교육위원회는 "불결하고 부도덕한 습관을 가진 학생, 그리고 전염병으로 고생하는 학생을 배척하고 또한 아메리칸 인디언 학생과 몽골리안, 중국인 학생을 위해 분리된 학교를 세우도록" 권한을 부여한 캘리포니아의 교육법에 따라 분리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7] 결국 교육위원회는 인종적 출신배경을 불평등의 기준으로 삼아 일본인과 한인 학생들이 공립학교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다.

---

5) Ibid., p. 34; Houchins Lee and Chang-su Houchins. "The Korean Experience in America", 1903-1924, *Pacific Historical Review* 43 (1974), p. 565.

6) "Only 209 Japanese in County Schools." Haynes, John Randolph Papers, University of California Library, Los Angeles, CA 로스앤젤리스 카운티의 교육장인 마크 케펠(Mark Keppel)의 통계에 의하면 로스앤젤리스 카운티의 학생 64,000명 중 일본인 학생은 불과 209명이었고, 남학생 160명과 여학생 49명으로 구성되었다.

7) Roger Daniels, *The Politics of Prejudice: The Anti-Japanese Movement in California and the Struggle for Japanese Exclus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7), p. 32.

1906년 8월부터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일본인에 대한 폭력이 만연했고, 1906년 12월 23일에 개최된 일본인과 한인 배척연맹(Japanese and Korean Exclusion League)의 대중집회에는 2,000명이 참석했다.[8]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반일운동이 심화되자 루즈벨트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 교육위원회의 위원들을 워싱턴으로 초청하여 분리결정 및 일본인의 이민 문제에 대해 회의를 개최하면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시도했다. 1907년 1월 루즈벨트 대통령은 캘리포니아 주의회의 대의원들과 만나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워싱턴으로 방문하도록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9]

마침내 1907년 2월 8일 교육위원회 위원들과 샌프란시스코 시장인 유진 슈미츠(Eugene Shimitz)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에 도착했다. 이 주일 간의 회의 후, 이들은 최종적인 타협안에 도달했다: 첫째, 나이가 많은 학생과 영어능력이 부족한 학생은 분리된 학교로 배치될 수 있다. 둘째, 캘리포니아에서는 동일한 연령과 능력의 학생은 인종에 상관없이 외국인이나 미국시민 모두 정규 공립학교를 계속 다닐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을 코케이지언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 학생에게 적용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러한 배려는 일본정부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조처였다. 셋째, 루즈벨트 대통령과 루트 국무장관은 일본계 이민을 제한하기로 약속했다.[10]

---

8) 연설자는 연맹의 회장인 오래프 비트모(O. V. Tvietmoe), 해안선원 저널(Coast Seaman's Journal)의 편집인 워터 맥아서(Water MacArthur), 캘리포니아 상원의원을 역임한 프랭크 맥고원(Frank McGowan), 빌딩거래협회 회장 맥카시(McCarthy), 노동협회(Labor Council) 회장인 윌리엄 해거리(William R. Hagery),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시장 슈미츠(Schmitz) 등이었다. 그들은 루즈벨트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의 일본인 문제에 관해 캘리포니아인보다 일본인의 입장에서 해결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San Franciscans Flay Roosevelt." John Randolph Haynes Papers, University of California Library, Los Angeles, CA.

9) Yamato Ichihashi, *Japanese in the United States: A Critical Study of the Problems of the Japanese Immigrants and Their Children* (Stanford University: Stanford University Press, 1932), p. 242.

워싱턴의 정책결정자들의 입장을 고려해 1907년 3월 13일 샌프란시스코 교육위원회는 분리결정을 철회하며 새로운 결의문을 통과시켰다. 이 결의문에 의하면 중국인과 한인 학생들은 동양인 학교로 배치되어야 하며, 결의문의 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일본인 학생들은 백인 학생들이 출석하는 공립학교에 복귀된다는 것이었다.[11] 1907년 3월 15일 아침 한인 학생 다섯 명이 샌프란시스코의 레딩학교에 등교했다. 그러나 학교 직원인 미스 딘(Deane)은 3월 13일자 교육위원회로부터의 지시사항을 근거로 한인 학생이 등교하는 것을 거부했다. 3월 14일에 한인 학생들을 받아들인 것은 레딩학교 교장이 실수한 것이라고 변명하며, 한인 학생들의 등교를 거부하는 것은 교육위원회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3월 13일의 결의문에 따라 중국인과 한인 학생들은 동양인 학교로 배치되어야 하며, 결의문의 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일본인 학생들만 백인 학생들이 다니는 공립학교에 등교가 허가된다고 주장했다.[12] 결국 루즈벨트 대통령과 교육위원회의 회담 후 일본인 학생들은 공립학교로 복귀했지만, 한인 학생들은 일본정부의 보호를 받는 일본인 학생들과 차별화되어 공립학교로 복귀되지 못했다.

일본의 신민으로 적용되어 캘리포니아에서 이등시민으로 간주되던 일본인보다도 더 불평등한 대우를 받았던 한인들은 1906년부터 1940년까지 미 본토에 여섯 개의 한국어 학교를 운영했다. 이들 한국어 학교는 모두 캘리포니아의 대도시인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리스, 새크라멘토, 디뉴바, 리들리, 그리고 드라노 등에 설립되었다. 1906년 한인들이 한국어 학교를 설립한 것은 샌프란시스코 교육위원회가 한인 학생들을 분리시켜 교육하려는 결정에 저항하여 한인으로서의 의

---

10) Roger Daniels, *The Politics and Prejudice*, p. 32, p. 42.

11) “Keep Close to Rules.” Haynes, John Randolph Papers.

12) Ibid., ; Yamato Ichihashi, *Japanese in the United States*, p. 244.

지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다.[13]

4. 1907년 <행정명령 589>와 한인 이민 중단

일본정부는 1894년 일본인들의 미국 이민을 제한하기 위해 현마다 할당제를 마련하여 계약노동자의 이민을 감소시키려 노력했다.[14] 그럼에도 불구하고 1900년 미국으로 떠나는 일본계 이민자들이 급증하여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반일감정을 자극하자, 일본정부는 반일감정을 완화시키기 위해 칙령을 제정하여 미 본토로 입국하려는 일본계 노동자들에게 여권 발급을 중단했다.[15]

그러나 이러한 일본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계 이민자들의 본토 입국은 계속되었다. 일본정부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이들 중 일부는 하와이로 갔다가 캐나다나 멕시코를 경유한 후 다시 미 본토로 이주했다. 일본정부가 자국의 통치권이 미치지 못하는 하와이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주하는 일본계 노동자까지 통제하기는 어려웠다.[16]

1900년 이후 미 본토로 입국하는 일본계 이민자들이 급격히 증가하자 캘리포니아에서는 일본계 이민자들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대다수가 저임금 노동자였던 일본계 이민자들이 급증하면서 캘리포니아의 노동시장에 일본계 노동자들의 잠식이 심각했고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불만도 고조되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

13) Houchins Lee, "The Korean Experience," p. 565.

14) 일본정부는 1886년까지 타국으로의 노동이민을 금지했다. 자국민을 외국에 노동자로 보내려고 하지 않았던 이유는 일본의 위상이 낮추어질까 염려했기 때문이다. Daniels, *The Politics of Prejudice*, pp. 4-5.

15) Ibid., p. 22.

16) Daniels and Olin, *Racism in California*, p. 109.

1901년부터 1904년까지 일본계 이민자들을 제한하기 위해 법안을 제정하려고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1906년 3월 13일 캘리포니아 하원의원 헤이(Hon. E. A. Hays)는 하원연설에서 샌프란시스코의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백인 노동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일본계 노동자들에 관해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실제로 백인들은 세탁업, 건물수리공, 요리사, 하인 등 각종 분야에서 일본계 노동자와의 불공정한 경쟁으로 인해 실업률이 증가하고 생존의 위협을 느낄 정도였다. 예를 들어, 건물 수리공의 경우, 1901년부터 1907년 동안 미국으로 이주한 일본인 109,406명 중 4,446명이 숙련 수리공인 데, 미국인들은 이들이 점차 건설산업 분야에서 노동력을 장악할 것임을 경고했다.[17]

1906년 가을, 루즈벨트 대통령과 루트 국무장관은 샌프란시스코 교육위원회가 동양계 학생들의 분리교육을 결정하게 된 배경에는 급증하는 일본계 노동자들의 노동시장 잠식 때문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들은 일본계 노동자들의 이민을 제한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핵심임을 파악했다. 실제로 일본인 배척주의자들도 일본인 학생들을 공립학교에서 분리하는 것보다는 일본계 이민을 배척하기를 진정 원했다. 루즈벨트 대통령과 루트 국무장관은 일본계 이민을 제한하는 것이 캘리포니아에서 제기된 일본인의 배척 문제를 해결하고 일본과 미국 간의 외교 마찰을 완화할 수 있는 해결책임을 인지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들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일본인 배척법을 제정하여 일본인을 배척하기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이들의 이민을 제한하기를 원했다.[18]

따라서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러한 캘리포니아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한편으로는 일본과의 외교마찰을 불러올 수 있는 샌프

17) A. E. Yoell, "Oriental vs. American Labor,"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34 (1909), p. 33.

18) Daniels, *The Politics of Prejudice*, pp. 30-32.

란시스코 교육위원회의 결정을 철회하기 위해 일본계 노동자들의 하와이에서의 미 본토로 이주하는 것을 중지시키기로 결정했다. 1907년 3월 초 루즈벨트 대통령은 <행정명령 589>를 공포하여 하와이, 멕시코, 캐나다 등을 경유하여 미 대륙으로 입국하려는 숙련, 비숙련 일본인 및 한인 노동자들의 이민을 금지했다. 한인은 동양계 이민자 중 극소수에 불과하여 주류사회에 한인집단으로 인지되지 못했지만 일본의 신민이라는 법적 지위로 인해 이민초기에 이미 본토로 이주하는 것이 중단된 것이다.

이 행정명령이 시행되자 하와이의 한인 노동자들이 캘리포니아로 이주할 수 없게 되어 캘리포니아의 한인사회가 지대한 타격을 받았다. 1905년부터 1907년까지 총 1,005명의 한인들이 하와이에서 대륙으로 이주했다. 이미 모국으로부터의 이민이 중단된 상태에서 <행정명령 589>에 의해 하와이 한인들의 이주마저 중단된 것이다.[19]

<표 1> 하와이에서 미 본토로 이주한 한인 (1905-1910)

년도	남 성	여 성	아 동	합 계
1905	373	16	10	399
1906	428	17	13	458
1907	130	12	6	148
1908	1	0	0	1
1909	2	0	0	2
1910	7	0	0	7
합계	941	45	29	1,015

U.S. Congress. House. *Immigration Commission. Abstracts of Reports of the Immigration Commission, Vol. I,* pp. 710-11에서 발췌.

19) 한반도에서 미국으로의 이민은 1905년 11월에 이미 중단되었다. 대한제국에 대한 일본의 보호령을 공식화한 협정이 비밀리에 조인된 1905년 11월 17일 수민원이 문을 닫았다. 수민원 총재 민영환은 한인들에게 독립에 대한 청원을 남기고 자살했다.

5. 1908년 신사협정과 사진신부 도래

일본의 신민으로 법적인 지위가 변화된 한인들은 1906년 샌프란시스코 교육위원회의 학생분리결정과 1907년 <행정명령 589>로 불이익을 감내해야 했다. 그러나 1908년 신사협정의 예상치 못한 결과로 1910년부터 사진신부가 이주하는 호재도 있었다. 사진신부가 이주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 1907년 루즈벨트 대통령과 루트 국무장관은 한인과 일본계 노동자들이 하와이에서 대륙으로 이주하는 것을 금지한 후 일본 정부가 스스로 미국행 일본계 이민을 제한하기 원했다. 1907년 12월, 일본정부는 미국 주재 주일대사를 아오키(Aoki)에서 보다 보수적인 타카히라(Takahira)로 교체했다. 1908년 1월 타카히라 대사는 미국정부와 교섭을 개시하여 1908년 신사협정에 서명했다. 이 협정에 의해 첫째, 일본은 미국으로 입국하려는 일본인과 한인 노동자들에게 여권발급을 중지하여 미국으로의 이민을 제한하고 둘째, 이전에 미국에 거주했거나 거주했던 자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숙련, 미숙련 노동자의 여권을 발급하지 않으며 당분간 하와이로의 이민을 중지할 것을 결정했다.[20]

한편 신사협정에는 이미 미국에 살고 있던 노동자와 그 부모, 자녀, 배우자에게는 앞으로도 여권을 발급한다는 인도적인 조항이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에 거주하는 부인이 미국의 남편과 결합하기 위해 미국으로 이민 올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 경우 결혼 상대자가 물리적으로 먼 거리에 떨어져 있어 사진을 통해 배우자를 고르는 것만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되었다. 신사협정 이후 일본여성들의 미국이민이 증가하면서, 1910년 이후 시애틀과 샌프란시스코 항구로 입국하는 일본인 사진신부의 수는 일본인 남성의 2배에 달했다. 1900

---

20) California State Board of Control. *California and the Oriental* (Sacramento, CA: California State Printing Office, 1920), p. 162.

년 일본인 성인의 남성대 여성의 비율은 25:1, 1910년에 7:1, 1920년에는 3:1이 약간 넘을 정도로 급감했다.[21]

신사협정의 결과 일본제국의 여권을 부여받아 미국으로 이주한 한인여성의 수도 점차 증가했다. 1911년 한인이민 8명은 모두 여성이었고, 1912년에 19명, 1913년 49명의 여성이 입국했다.[22] 1910년 11월부터 1924년 10월까지 하와이에는 800여 명, 미 본토에는 115명의 한인 사진신부가 이주하여 한인사회의 일원이 되어 활력을 더했다. 하와이로 이민 온 사진신부는 한반도 남부(영남과 그 주변지역) 출신인 반면, 본토로 온 115명의 대부분은 북부(평안도와 황해도) 출신으로 상해를 거쳐 도착했다.[23] 사진신부의 이주로 독신남성 위주의 한인사회가 점차 가족 중심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1910년 한인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90.7: 9.3이었다. 초기 한인사회는 남성들의 비율이 훨씬 높았기 때문에 성비가 불균형했고 한인의 이주가 중단되어 이러한 성비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었던 것이다. 더구나 미국사회에 만연한 인종차별과 동양인과 백인과의 결혼이 금지되어 있어 한인 남성들은 현지의 미혼여성과 결혼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사진신부의 이주로 1920년 75.4: 24.6. 1930년 65.8: 34.2로 성비가 격감했다.[24]

신사협정의 결과 미국으로 이주한 사진신부들은 여성에 대한 당

---

21) "The Successor to the Picture Bride." Katherine Philips Edson, Papers, University of California Library, Los Angeles, CA.

22) U.S. Department of Commerce and Labor, *Statistical Abstract of the U.S. Bureau of Statistics. 1913*, p. 88.

23) Sonia Shinn Sunoo, ed. *Korean Picture Brides: A Collection of Oral Histories* (Davis, CA: Korean Oral History Project, 2002), p. 16; 민병용,『美洲移民 100年: 初期人脈을 캔다』(서울: 한국일보사 출판국), p. 219.

24)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the Census. *Fifteenth Census of the United States 1930, Population 2. General Report Statistics by Subjects*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32), p. 88.

시의 편견에도 불구하고 한인사회의 정착과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미 본토의 한인 사진신부들을 인터뷰했던 한인 2세 선우 소니아(Sunoo Sonia)는 새롭게 미국사회에 정착한 사진신부들이 지닌 특성 가운데 무엇보다도 전통적인 여성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적극적인 성향을 지적하고 있다.[25] 대다수가 14세에서 20대 초반의 나이였고, 결혼만이 주된 목적은 아니었다. 일부는 미국에서 신학문을 배워 애국하겠다는 목적으로 온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면, 사진신부 김석은(1913년 도미, 19세)은 북부출신으로서 12세에 교육을 위해 서울의 사립 기숙사학교로 공부하러 갔었고, 떠날 당시도 학생이었다. 그녀는 "교육을 위해 도미했다. 일본이 교육을 통제하고 한인들은 일본어를 배우고 사용하고, 말하도록 강요당했다. 자유가 없었고, 이것이 모국을 떠난 이유였고, 모국을 떠날 유일한 방법은 사진신부로서 가능했다"고 회고했다.[26] 강성학(1917년 도미, 17세)은 교육과 여행하려는 강한 욕구로 도미했으며,[27] 김차봉(1915년 도미, 19세) 역시 교육의 목적으로 도미했다.[28] 윤연도(1916년, 24세)은 "1916년 사진결혼으로 미국에 오게 되었다. 이주 동기는 결혼이 아니라 공부가 목적이었다. 모국에서 간호부로 일했는데 선교사로 돌아가 불쌍하고 병든 자들을 돕고 적절한 약을 먹이기 위해 공부하기를 원했다"고 언급했다.[29]

초기 이민자들과는 달리 사진신부가 이주한 1910년부터 1924년의 기간은 모국에서 이미 근대식 교육을 받았거나 교육에 대한 욕구에 더 노출될 수 있었던 시기였다. 당시 미국에 살던 한인 노동자들

---

25) Sunoo, Sonia Shinn, ed., *Korean Picture Brides,* pp. 16-18.

26) Ibid., pp. 77-79에서 인용.

27) Ibid., p. 299.

28) Ibid., p. 304.

29) "Mr. & Mrs. Yun Yoon." Korean-American Oral History Project,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CA.

은 상당수가 교육을 받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사진신부들은 소학교 이상을 마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30] 사진신부는 교육에 대한 욕구도 높았던 만큼 교육수준도 남편에 비하면 높았다.

한편 사진신부들은 사진과 서신을 교환했을 뿐 만난 적도 없는 남성들을 샌프란시스코의 부두에서 처음 대면하여 신랑으로 받아들이며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다. 어떤 남성은 나이를 낮추기 위해 젊은 시절 찍었던 사진을 보내왔기 때문에 사진신부가 된다는 것 자체가 용기와 강인함이 필요했다. 미국의 한인신랑들이 나이와 생활 형편을 속인 경우에도 사진신부들은 고국으로 돌아가기가 어려웠다. 남편의 나이가 많거나 외모가 못 생겼기 때문에 돌아간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예를 들면 1913년 19세의 나이로 사진신부로 도미한 김석은은 도착 후 실망과 절망감이 매우 심했다. 남편은 사진에서 본 것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고, 자신을 속였다는 것을 알았지만 할 수 없이 결혼하고 새크라멘토에 거주하며 살 수 밖에 없었다.[31]

사진신부들은 입국 직후부터 한인여성이자 이민자로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경제적으로 공헌했다. 심지어 결혼식을 마치자마자 농장에 가서 일을 시작한 사진신부도 있었다.[32] 1916년 20세에 사진신부로 도미한 윤연도는 공부가 미국이민의 목적이었지만 샌프란시스코에서 결혼한 후 새크라멘토 근처의 리들리 쌀농장에서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었다. 이후 그녀는 맨티카로 가서 3년간 음식장사를 하며 가족의 생계를 도왔다.[33]

---

30) 민병용, 『美洲移民 100年』, p. 220: *The New Korea*, 25 March 1915 참조.

31) Sunoo, Sonia Shinn, ed, *Korean Picture Brides,* p. 78.

32) 민병용, 『美洲移民 100年』, p. 220.

33) “Mr .& Mrs. Yun Yoon.” Korean-American Oral History Project.

6. 맺음말

한인들이 주로 이주한 캘리포니아는 1850년 이후 중국인을 비롯한 동양계 이민자들의 집중 거주지였기 때문에 인종적 차별과 편견이 강하게 고착되어 있었고, 동양계 이민자들은 법적·사회적·경제적으로 많은 제한을 받았다. 이민초기 한인은 수적으로 열세였기 때문에 독자적인 민족이나 집단으로 취급되지 못하고 다른 동양계 이민자들과 동일시되어 다양한 인종차별을 경험했다. 한인들은 다른 동양계 이민자들처럼 차별적 환경을 감내했지만, 이들에게 더욱 힘겨운 것은 1905년 캘리포니아에서 한인공동체를 형성하기 시작할 무렵 샌프란시스코에서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반일운동이 결성되었고,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박탈당했다는 현실이었다. 한인들은 1905년 이후 반일운동이 극심해진 캘리포니아에서 동양계 이민자라는 차별적 지위에 일본의 신민이라는 법적 신분마저 부가되어 더욱 차별적인 환경에 적응하며 삶을 개척해야 했다.

이 시기 동안 한인들의 삶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반일운동으로 인한 반일본 관련법과 행정명령이었다. 1906년 10월 11일 샌프란시스코 교육위원회는 분리 결정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10월 15일 모든 일본인과 한인 학생들을 샌프란시스코 소재 차이나타운의 동양인 학교에 등교하도록 명령했다. 일본의 신민으로 적용되어 캘리포니아에서 이등시민으로 간주되던 일본인보다도 더 불평등한 대우를 받았던 한인들은 1906년부터 1940년까지 미 본토에 여섯 개의 한국어 학교를 운영했다. 1906년 한인들이 한국어 학교를 설립한 것은 샌프란시스코 교육위원회가 한인 학생들을 분리시켜 교육하려는 결정에 저항하여 한인으로서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었다.

일본의 신민으로 법적인 지위가 변화된 한인들은 1907년 <행정명령 589>로 불이익을 감내해야 했다. 1907년 3월 초 루즈벨트 대통령

은 <행정명령 589>를 공포하여 하와이, 멕시코, 캐나다 등을 경유하여 미 대륙으로 입국하려는 숙련, 비숙련 일본인 및 한인 노동자들의 이민을 금지했다. 한인은 동양계 이민자 중 극소수에 불과하여 주류 사회에 한인집단으로 인지되지 못했지만 일본의 신민이라는 법적 지위로 인해 이민초기에 이미 본토로 이주하는 것이 중단된 것이다. 1907년 3월 <행정명령 589>가 시행되자 하와이의 한인 노동자들이 캘리포니아로 이주할 수 없게 되어 캘리포니아의 한인사회가 지대한 타격을 받았다. 1905년부터 1907년까지 총 1,005명의 한인들이 하와이에서 대륙으로 이주했으나 이미 1905년 11월 모국으로부터의 이민이 중단된 상태에서 <행정명령 589>에 의해 하와이 한인들의 이주마저 중단된 것이다.

그러나 1908년 신사협정의 예상치 못한 결과로 1910년부터 사진신부가 이주하는 호재도 있었다. 한인 사진신부들은 1910년부터 미국으로 이주기 시작했고 미국으로 입국하는 한인 여성의 수도 점차 증가했다. 1910년 11월부터 1924년 10월까지 하와이에는 800여 명, 미 본토에는 115명의 한인 사진신부가 이주하여 한인사회의 일원이 되어 활력을 더했다. 사진신부들은 입국 직후부터 한인여성이자 이민자로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경제적으로 공헌했고, 가족공동체 중심의 한인 사회가 형성되는 데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캘리포니아의 한인들은 모국이 일본의 속국으로 되면서 법적인 지위가 변화되고 캘리포니아의 차별적 환경에 적응하면서도 그들만의 특성을 가진 한인 사회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삶에는 캘리포니아의 인종 차별, 조국의 국권상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반일감정에 한인들의 적응의지가 반영되었다. 캘리포니아의 한인들은 차별적 환경과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제한된 기회를 활용하여 삶을 개척하면서 미주 한인사회의 기초를 이루었다.

참고문헌

<1차 사료>

Statutes of California. Sacramento, CA: California State Printing Office, 1920, 1923.

U.S. Bureau of Census, *Statistical Abstract of the U.S.: Annual Report.*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the Census, *Thirteenth Census of the United States Taken in the Year 1910, Vol. I. Population.*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13.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the Census. *Fourteenth Census of the United States Taken in the Year 1920, Vol. II. Population.*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21.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the Census. *Fifteenth Census of the United States 1930, Population 2. General Report Statistics by Subjects.*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32.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the Census. *Fifteenth Census of the United States 1930, Agriculture Vol. II.*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30.

Special Collec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Library, Los Angeles, CA.
John Randolph Haynes Papers
Katherine Philips Edson Papers
Korean-American Oral History Project Collection (1903-1945)

<2차 사료>

김신행,『새하늘과 새땅을 향하여 - L.A.연합감리교회의 100년역사 1904-2004』, Los Angeles: LA 연합감리교회, 2004.

김연진,『미국내 한국이민과 소수민족적 정체성의 형성』,『미국학논집』제31집, 1999, pp. 259-302.

김지원, 『캘리포니아 한인 사회의 변화와 특성 연구(1903-1945)』,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민병용, 『美洲移民 100年: 初期人脈을 캔다』, 서울: 한국일보사 출판국, 1986.

손보기 편, 『재미한인 50년사』, 서울: 혜안, 2004.

Bailey, Thomas, *Theodore Roosevelt and the Japanese American Crisis,* Gloucester: Peter Smith, 1934.

California State Board of Control, *California and the Oriental,* Sacramento, CA: California State Printing Office, 1920.

Daniels, Roger, *The Politics of Prejudice: The Anti-Japanese Movement in California and the Struggle for Japanese Exclus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7.

Daniels, Roger and H. L. Kitano, *American Racism: Exploration of the Nature of Prejudice,* Ea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70.

Daniels, Roger and Spencer C. Olin, Jr., *Racism in California: A Reader in History of Oppression,* New York: Macmillian Company, 1972.

Ichihashi, Yamato, *Japanese in the United States: A Critical Study of the Problems of the Japanese Immigrants and Their Children,* Stanford University: Stanford University Press, 1932.

Kennan, George, "The Japanese in the San Francisco Schools." *Outlook* XXVI, 1907, pp. 249-253.

Kim, Won-yong. *Chaemi Hanin Osipnyun-sa (Fifty-Year History of Koreans in America)* Reedley, CA: Charles Ho Kim, 1959.

Lee, Houchins and Chang-su Houchins, "The Korean Experience in America, 1903-1924.", *Pacific Historical Review* 43, 1974, pp. 551-566.

Son, Young Ho, "From Plantation Laborers to Ardent Nationalists: Korean's Experience in America and Their Search for Ethnic Identity, 1903-24.", Ph.D. Dissertation, Louisiana State University, 1989.

Sunoo, Sonia Shinn, ed. *Korean Picture Brides: A Collection of Oral Histories.* Davis, CA: Korean Oral History Project, 2002.

Williams, Carey, *Prejudice: Japanese Americans, Symbols of Racial Intolerance.,*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44.
Yoell, A. E., “Oriental vs. American Labor.”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34, 1909, pp. 31-35.

The Anti-Japanese Movement in the U. S. and Adjustment of the Korean Immigrants, 1905-1910

Kim, Ji-Won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examine formation and adjustment of Korean community in California from 1905 to 1910. Using Oral histories, special collections, and contemporary studies, this study analyzes how Korean community was influenced by anti-Japanese laws and formated their characteristics as they adapted in California during this period. The legal status of Korean immigrants was aliens ineligible to citizenship like other Asian immigrants who bear the brunt of the racial hierarchy in the United States since 1790. Furthermore, Koreans in the United States were considered as Japanese subject because Korea had been under Japanese rule since 1905.

Koreans in Hawaii, who had moved to California from 1905 to 1907 mainly consisted of Korean population and formated Korean community there. Koreans in California had applied different ways of adjustment depending on anti-Japanese laws and racism. In 1906 the San Francisco Board of Education decided Koreans in California to attend on the Oriental school. Koreans would not attend Oriental school and established Korean Language Schools in California from 1906. In 1907 the immigration of Korean and Japanese laborers from Hawaii to the continental United States was specifically prohibited due to the Executive Order 589. But as a result of Gentlemen's Agreement, Korean picture brides had moved to the United States from 1910 to 1924. Korean Community which was mainly consisted of unmarried single men was transferred to family-unit community.

Key words: Anti-Japanese Movement, Korean Immigrants, Executive Order 589, Gentleman's Agreement, Picture Brides.

김지원
소속: 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전화번호: 010-3158-7655
전자우편: jiwon161@daum.net

이 논문은 2012년 7월 13일 투고하여
2012년 8월 16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2년 8월 23일 게재 확정함.